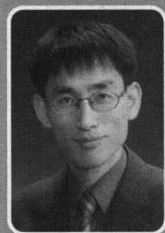


# 논술, 길게 보고 가자

글\_ 윤세병(대전과학고등학교 교사, 《살아 있는 세계사 교과서》 공동 저자)



영어 열풍 못지않은 것이 논술 열풍이다. 대학 입시에서 논술이라는 것이 생겨나면서 고등학생들이 ‘한 첩’ 공부하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논술학원까지 생겨나 논술교육은 상당히 보편화되었다.

서점에 나가 보면 논술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 출판물이 적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하나는 수험서 코너에 있는 논술 서적이고 또 하나는 문학과 고전 서적에 논술이라는 것을 달고 나오는 책들이다.

모 출판사는 《삼국지》가 논술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하면서, 독자들의 관심을 끌어 모으기도 하였다. 소설이 주는 재미와 함께 《삼국지》가 논술 서적으로 둔갑하여 엄청난 판매고를 올렸다. 어떻게 《삼국지》와 같은 소설이 논리적 사고를 표현하는 논술 서적이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그리고 이젠 문학과 고전의 표지에서도 ‘서울대 선전, 고전’이라는 것과 함께 논술 대비라는 글씨가 박혀 있는 것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심지어 몇해 전에 《어린 왕자》의 지문이 대입 논술에서 출제되자 어느새 이 책조차도 논술서적이 되어버린 듯한 느낌마저 든다.

문학 책을 문학으로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논술이라는 목적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한다는 현실이 슬프다. 물론 이유가 어찌되었든 책을 잘 읽지 않는 우리 현실에서 논술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를 주었다고 한다면 할 말은 없다. 이제 방학이 되면 학부모들은 서점에 나가 아이들에게 사줄 책을 고민할 것이다. 논술이라는 주술에서 벗어나 길게 바라보고 당장은 의미없어 보일지라도, 아이들이 ‘맛있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을 사주면 어떨까? 그것이 결국은 아이들이 책을 가까이 하고 논술이라는 것에 더 쉽게 다가가는 길일 것이다.

서점 한 칸에는 다양한 종류의 논술 대비 서적들이 쌓여 있다.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염두에 두어서 그런지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가공되어 있다. 그리고 대개의 논술서적들은 비슷한 내용과 형식을 취하고 있다. 시사적인 문제에서부터 보편적인 가치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주제별 분류와 유형화 작업으로 그물을 촘촘히 쳐 놓고 문제가 그물망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그 분류 방식이나 주제, 그리고 풀어 놓은 내용도 비슷비슷

하다 보니 실제 시험에서 비슷한 답안들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여기에 이르면 논리적 사고력 신장이라는 목적이라는 논술 시험의 도입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논술의 도입이 자의건 타의건 간에 사회 현상을 비롯한 우리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생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논술 수험서에서 보듯 되도록이면 ‘빨리’ 지름길로 가려고 하다 보니, 자기 생각(논리)을 만드는 과정은 생략되어 있고 남들이 만들어 놓은 생각(논리)을 섭취하는 데만 익숙하다. 그래서 주제적 사유 과정을 통한 논리적 사고력을 만들어가기보다는 논술이 하나의 테크닉으로 전락되는 것이다.

좋은 논술을 위해 구양수의 “다독多讀, 다작多作, 다상량多想”에서 지혜를 구할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를 더한다면 많이 이야기해 보자는 것이다.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신문의 칼럼이나 사설을 구해서 읽되, 다양한 신문에서 뽑아 논점의 대립각을 명확히 보고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논술도 그 핵심은 충돌하는 가치나 상황을 제시하고 어떤 선택 또는 어떤 대안을 찾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 아니던가. **윤세병**

